

2022년 1월 5일(수) 오후 4시 30분~5시 30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튜브 채널 중계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범그리스도교
간담회**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코로나19로 현장 참석은 받지 않습니다. 유튜브 중계로 함께 해주세요.

누구의 지지를 얻어서 하는 정치에 당신의 명예를 거시겠습니까?

김혜령 교수 (이화여대, 여성신학회 총무, 기독교윤리신학자)

저희는 오늘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스도교 내에서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을 지지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을 발의하여 오늘까지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시고 있으신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별받는 상태는 자연될 수도 없고, 연기될 수도 없습니다. 특히 헌법에 보편적으로 보장된 시민의 생명권과 사회권, 행복추구권이 이 땅 누군가에는 평등하게 보장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법 제정의 지연은 곧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완전한 고립에서 단 한 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실제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생존의 위기, 배제의 위기, 자살의 위기에 당장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 중에서 차별금지법의 일부 항목을 표적 삼아 조직적으로 반차별금지법 운동을 펼치는 단체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이웃사랑이고, 예수는 그 이웃의 경계와 범위가 시대적 역사적 변화에 따라 언제나 새롭게 무너지고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배제와 정죄의 선교 전략’은 겉으로 볼 때에는 주류인 듯 보이지만,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의 이웃사랑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모순 되기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차별금지법에 반대의 힘을 모으는 한국교회의 교권세력은 이미 한국 그리스도인들 다수의 신뢰와 존경을 잃었습니다. 최근 그리스도교의 교세 추락과 사회적 명성의 훼손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통해 성소수자와 페미니즘, 이슬람 난민과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적의를 표출하며, 관용과 환대, 나아가 나눔과 희생의 그리스도교 윤리를 교권세력이 스스로 위반한 결과 임이 자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을 비롯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모은 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몰락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교권세력과 함께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웃사랑의 가장 큰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교 본질을 지지하는 새로운 그리스도교인들의 뜻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미 세계의 민주주의 문명을 선도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나 그와 유

사한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에는 많은 개신교 교파들과 가톨릭 지역 교구에서 성소수자들의 결혼을 축복하거나 교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직자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복음주의루터교회, 독일의 루터교회, 미국장로교회, 미국연합감리교회, 캐나다 연합감리교회, 영국 성공회, 프랑스 개신교 교회 등에서 그러한 일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미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존귀하게 여기는 휴머니즘의 진보입니다. 신본주의를 가장하여 교회의 여성안수를 거부하고 목회를 세습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력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가장 열성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BTS와 오징어게임, 지옥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컨텐츠가 세계시민들의 마음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세계 문화의 최전선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포괄적이며 보편적으로 평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수치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계의 시민들이 이미 휠체어를 타고 노동현장에서 제 뜻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모국이 아니라 타국에서 뿌리를 내리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시민들도 이제 그러한 권리를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는 기독교인 장로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대형 교회에 참석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나라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재선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인 유권자들의 전화 문자폭탄을 두려워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과 모든 생명이 창조 처음의 가치를 따라 이 땅에 행복하고 존엄하게 번성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정교분리사회에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국회의원에게 이뤄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나라 본연의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내부 개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제발 교회의 교권 세력에 발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지지를 얻어서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지지를 얻어서 하는 정치에 당신의 명예를 거시겠습니까? 현명한 판단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켜, 결국 많은 시민들의 삶에 평화를 되찾아 주시는 진정한 정치인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신교회의 반응과 그 변화에 대하여

홍인식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이사장 목사 홍인식입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시도가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2007년 최초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평등법이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개신교계의 반발이었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일부 교회들의 혐오에 가득 찬 과격한 반대 운동이 있어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과격한 행동과 의견 표출로 인하여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개신교계의 반발이 심각하다고 평가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태도와 반응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습니다.

법안이 처음 상정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던 초기, 개신교의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이 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상당한 숫자의 교회에서 이러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모든 개신교회가 차별금지법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실도 아닙니다.

개신교,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인권센터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이 예수 복음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실천 행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선포해 왔고 또한 개신교들의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5년 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를 더불어 국내외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차별금지-평등법과 관련된 성소수자 인권지원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 2017년 NCCK 성소수자 교인 목회연구 소위원회 발족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 2018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대화의 장을 열어가기 위한 ‘한국교회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2018년 5월에는 영국감리교회(MCB), 대만장로교회(PCT), 캐나다연합교회(UCC), 미

국그리스도연합교회(UCC), 일본기독교단(UJ), 독일복음교회(EKD), 스코틀랜드세계선교협의회(CSWMC),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CRC), 필리핀그리스도연합교회(UCCP), 세계기독교학생회총연맹(WSCF) 등) 세계교회가 참여한 에큐메니칼 국제 성소수자 인권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발간 예정 중인 NCCCK성소수자 교인 목회 매뉴얼은 바로 본 국제회의의 결의로 시작되었습니다.

- 2019년 4개 종교(불교/원불교/천주교/NCCCK) 인권단체와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을 개최했습니다.

- 2020년 차별금지-평등법 학습자리 제공 및 해당 법안에 관한 허위정보(가짜뉴스 등)를 바로잡고, 각 영역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질문들을 전문가로부터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방식의 차별금지-평등법 설명회를 4개 종단(불교/원불교/천주교/NCCCK) 인권 단체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 2020년에는 뜻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독교의 본질과 가치는 차별과 혐오가 아닌 환대와 사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2021년 4월 성소수자 인권지원 연대 네트워크 제안

- 2021년 6월에는 위 연대 네트워크 준비모임에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연속 포럼(세상을바꾸는여름) 개최

- 2021년 9월 뜻을 함께하는 초기 30여개 교계 단체들과 공동으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를 출범했습니다.

- 특히 2021년 12월에는 35회 NCCCK 인권상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시상함으로써 기독교 신앙과 차별금지법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결국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반 지성, 반인권의 벽을 넘어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환대가 살아 숨 쉬는 교회 공동체로서 새 길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과 연대’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NCCCK와 인권센터 그리고 평등세상을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 내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태도는 현저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언하건대 2022년, 오늘의 상황에서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개신교의 부정적인 반응은 결코 개신교를 대표할 수 없는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교회를 비롯한 교권주의자들의 계속되는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전체적인 의견이 아닐뿐더러 과대 포장되어 있거나 과도한 대표성을 부여 받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일반 성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의견은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NCC와 인권센터를 비롯한 여러 기독교인들의 오랜 시간동안의 활동과 꾸준한 실천은 개신교 내의 기류를 확실하게 변화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법안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은 그 어떤 이유라도 인권이 침해되거나 그로 인하여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신교인의 대다수가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NCKK계열의 교회 혹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교회의 목회자 혹은 성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인식 변화는 단지 진보적인 교회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회 내에서도 이 같은 기류변화는 손쉽게 발견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랑이 혐오와 배제를 이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차별금지-평등법은 믿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차별금지-평등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서로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안아주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이런 세상을 향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이 법을 적극지지하고 응원하고 찬성합니다. 결국 사랑이 혐오를 이길 것입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소외와 불평등이 고이는 자리에서 신과 동행하려는 교회가
정의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인 분들에게 묻습니다.”

- 대한성공회의 사회적 소수자 사목 방침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

자캐오(용산 나눔의집 원장/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

저는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이자 올해부터 2년간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직을 맡게된 자캐오입니다. 성공회라고 하면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에게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별세하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님과 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단이라고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영미권에서 주류 교회인 성공회는 세계 그리스도교 지형에서 천주교회와 정교회에 이어 단일 교단으로는 세 번째 규모를 가졌지만 한국에서는, 130년이 넘는 역사에도 매우 작은 규모의 교단입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저희가 운영하는 성공회대학교가 더 유명하다는 농담이 나오곤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인지 성공회 사제로 사람들에게 신부라고 불리는 저는 자주 ‘사회적 소수자의 자리’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소수자 분들처럼 저도 계속해서 제 종교적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를 요구받거나 설명해야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류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그에 대해 모르는 걸 부끄러워 할 때도 있지만 비주류나 사회적 소수자는 ‘왜, 무엇을, 어떻게’를 반복해서 설명해도 또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때문일까요? 세계성공회도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는 정치적 교회’로 스스로를 설명하지만 대한성공회도 한국 사회에서 ‘소외와 불평등이 고이는 자리’에 가면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용산나눔의집은 수도권에 있는 9개 나눔의집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 시작이 35년 전 상계동 골짜기 가난한 이웃들의 곁이었습니다. ‘도시빈민운동’이라 부르던 주민운동의 맥락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나 주거복지센터 등이 제가 속한 나눔의집 운동에서 시작해 정부에게 넘겨 준 활동이자 사업들입니다. 제가 회장직을 이어받은 정의평화사제단은 매해 6 10 월 일이 되면 정동 서울대성당 안에 있는 ‘6월 민주 항쟁 진원지 기념 표지석’ 앞에 6·10 모여 민주 항쟁 기념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 정신과 교회가 추구하는 복음의 정신이 똑같지는 않아도 어떻게 서로에게 좋은 길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처럼 대한성공회는 소외와 불평등이 고이는 자리에서 신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를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 길벗들을 편들고 연대하

는 정치적인 교회'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인과 정치 철학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동행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애정이 담긴 날선 비판을 하며 소외와 불평등으로 인해 가난하고 힘겨운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좋은 동지가 되라고 적극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성공회는 각 시대나 교회와 기관이 처한 자리에서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깐 그리스도교 성서와 전통에서 말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길벗들을 우선적으로 편들고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는 게, 바로 '복음이자 선교' 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성공회는 세계성공회가 오랜 시간 논쟁하는 중인 '동성 결혼과 축복'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지만 한 사람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편견이나 차별 · 혐오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속한 정의평화사제단과 나눔의집협의회는 작년에 故 변희수 하사 등의 별세를 함께 슬퍼하며 애달픈 마음으로 사죄를 표하고 성소수자, 길벗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더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성탄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연합 감사성찬례'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과 관계자분들 여러분은 분명 정의로운 정치인이 되고자 매일같이 애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 가운데 소외와 불평등이 고이는 자리에서 신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정의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인 분들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평등법 제정을 위해 여러분이 굳게 손을 붙잡고 동행해야 할 교회와 신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듯이 한국 그리스도교의 보수적인 신자들과 지도자들은

우리가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적극 반대하고 뉘앙스를 선동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의 협상 시도는 오히려 속임수로 곡해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분들의 세계관에는 '승리 아니면 순교' 라는 프레임만 작동하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중도파' 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정확한 타겟팅으로 명료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상민 의원님과 관계자 분들 정의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함께 붙들고 가야 할 교회와 신자들은 평등법 제정이라는 과정을 일관되게

끝까지 동

행할 교회와 신자들입니다. 그렇게 일관되고 명료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제시해야 아직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의원님들과 관계자 분들이 바라는 입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정의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동행하려는 교회와 신자들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래로부터 느껴지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려면 바로 지금 의원님과 관계자 분들의 일관되고 명료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빼놓지 않고 가겠다고 굳은 의지로 모두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더 큰 목소리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쯤에서 얼마 전에 별세하신 데스몬드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성공회 대주교님의 말씀 가운데 한 문장을 인용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이 불의한 상황에서 중립을 취한다는 건 압제자의 편을 선택한 겁니다”(If you are neutral in situations of injustice, you have chosen the side of the oppressor.)

차별금지법과 교회

이수연 목사(새맘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맘교회 이수연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체감하는 차별금지법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 한 일간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고가 하나 실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고는 꽤 이슈가 되었는데, 이 광고를 낸 곳이 다름 아닌 바로 개신교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광고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껏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장 반대하는 집단으로 여겨져 왔는데, 바로 그 기독교에서, 그것도 개신교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고를 내다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몇 대형교회들의 반대 목소리가 마치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실제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이들보다 그들과 함께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해야 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의 짐작이 아니라, 제가 속한 교회와 제 주변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놓기>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책을 매개로 교인들과 대화를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소수자나 차별금지법을 대하는 교인들의 반응이 훨씬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윤리라고 말해주었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오히려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심각한 논쟁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성소수자 관련 책을 함께 읽었는데, 그 누구도 이견이 없어서 매우 싱겁게 책모임이 마무리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밖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함께 하는 교회를 찾기 위해 수십 명의 목사들에게 연락을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견해는 크게 둘로 나뉘지긴 했습니다. 둘로 나뉘었다고 하니 당연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과 찬성하는 이들로 나뉘졌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았습
니다. 이 두 부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을 목사 개인적인 견해로 가지고 있는 부
류와 그렇지 않고 교회 차원에서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 부류 그 둘로 구분되었습니
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사 개인적인 견해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교인들 전부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듯이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견해들에 익숙해져 있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몰라서 아직
망설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취했던 거의 모든 목사들은 차별금지
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사로 인식되는 것을 매우 꺼려했고, 개인 차원이든, 교회 차원
이든 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했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과거와 정말 많이 달라졌고, 차별
금지법 필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불과 몇 달 전과 지금이 또 달라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1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이 무산되면서 더욱 힘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지를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교적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진영에 속해있는 저의 견해
이니 이 또한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껏 기독교를 대
표하던 소리와 다른 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시민으로 사는 것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시민과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과제입니다. 성서를 바르게 해석해야 할 책임
이 있는 종교지도자들이 성서에 대한 문자주의적 해석으로 기독교인들의 좋은 시민이
될 의무와 권리를 막아서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부디 차별금지
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의 목소리가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보다 더욱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을
위해 오신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누구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 서두에 언급했던 광고 문구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가톨릭과 차별금지법

박상훈 신부(천주교 신부)

안녕하세요? 천주교 박상훈 신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교회 하고는 다르게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주고 물론 사제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 자체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별의 현상 가운데서 이거 하나의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가 가톨릭 안에서는 봉쇄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전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주교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명칭으로 담화문을 냈습니다. 그때도 이유가 성소수자 그다음에 동성애 문제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작년에도 서울교부에서 이 메시지를 조금 더 강하고 제가 듣기에도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목자들의 발언인가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는 담화였는데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 두 가지 성명 때문에 논의를 어떻게 진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저 같은 경우도 동료 사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교리 문제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왜냐하면 동성애가 무질서한 행위라서 죄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죄입니다. 동성애가.

가톨릭에서 성관계는 오로지 부부 사이 관계 안에서만 허용이 되거든요. 부부 사이 관계에서 성관계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부부 사이의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입니다. 이 두 갖추어져야 그때야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성애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녀 출산이 애당초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성적 행위가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뒤에 어떤 조항이 붙어 있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의 조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가톨릭은 그분들을 존중하고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동성애자 그분들을 대하는 행동 양식 이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앞에 것이 설사 교회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습

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다음입니다. 이게 인간의 권리에 피해를 주거나 침해하거나 그런 행위를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신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통주의를 신앙의 아주 큰 부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현실을 보자면 동성애에 관련된 새로운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전근대적입니다. 그래서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접근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새로운 데이터기 때문에 만약에 가톨릭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인권 침해, 인권 존엄을 위배하는 그런 것을 발표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에 스스로가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가톨릭교회는 사실 인간 존엄을 아주 강력하게 옹호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그랬고요. 죽음을 불사하고 인간 존엄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그런데 성 윤리에 관해서 전혀 다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도 어떤 불일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성애 문제는 단지 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 문제죠. 그분들이 얼마나 이른바 주류 사회의 생각에 의해서 고통을 받아왔는지 자살을 한다든지 극심한 혼란 속에 자기 삶을 견뎌왔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누구를 돌보고 염려하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앞으로 논의를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성애에 분이 자신의 소명을 가톨릭 공동체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사람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과 함께 모아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옛날 교리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가톨릭 교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추세를 볼 때 개방이 되고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톨릭은 인위적인 피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콘돔, 피임약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프랑스 교황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딜레마가 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콘돔의 사용 여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심각하다. 문제는 영양 부족, 착취, 노예, 노동, 물 부족, 사회 부정의와 인간 존엄 위배가 훨씬 큰 문제라는 말을 했어요. 가톨릭은 교회 법과 인간 존엄 관계로 생기는 단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교황께서 이런 말을 해요. 안식일에 뭐가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행동을 하시오, 이 세상에서 불의가 사라지면 그때 우리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아마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신앙인들한테 하나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베드로 성당 옆에 빈민이나 이런 집 없는 사람들이 묵고 갈 수 있게 만든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황이 매일 아침 기도와 미사를 하고 그 집에서. 그때 우리에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정치인들에게 사랑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는 사랑과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은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은 가톨릭 신자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그게 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야말로 공동선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 공동선은 인간이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제도의 총합, 개인의 선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 법의 지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공동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해야 한다.

반면 공동선에 위배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이 사람들이 공동선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가톨릭 신앙인들은 반드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겉으로는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변에 있는 것은 누가 이런 차별을 용인하는 그런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주시고 진척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